VOL. 23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GYEONGNAM MECENAT

VOL. 23

발 행 인 손교덕

편 집 인 신병철

진 행 하선주

발 행 일 2017. 8. 1

발 행 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3층
Tel. 055. 285. 5611 **Fax.** 055. 286. 5610

홈 페 이 지 www.gnmecenat.or.kr

기획 · 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 055. 296. 4995

인 쇄 경남신문사 Tel. 055. 210. 6000

※이 책은 경상남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 Message
  - 04 회장 인사말
- Special Thema
  - 06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아시아에서 세계로'
  - 10 걸작에 숨겨진 사랑이야기-파블로 피카소/에드바르트 뭉크
  - 14 2017 창원국제실내악축제
- 메세나 칼럼
  - 18 문예진흥기금 고갈 위기 시대의 딜레마-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염신규
  - 20 경남메세나에서 희망을 본다-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장 하선주
- 아름다운동행
  - 22 휴롬인재개발원 + 산청요
  - 26 경남자동차판매 + 통영옻칠미술관/경남쳄버소사이어티
- Interview
  - 32 (주)에이스코트-정철호 대표이사
  - 34 (유)상화도장개발-이년호 대표이사
  - 36 손양희 국악예술단장
- 엔조이컬처
  - 38 아티즈(Artis) 대표 레베카 보일 서의 예술교육
- 결연단체 활동후기
  - 40 극단마산
  - 42 경남전업미술가협회
  - 44 (사)경상오페라단
-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 46 문화경영세미나
  - 47 어울림과 소통전
- 메세나 소식
  - 48 2017 경남메세나 정기총회
  - 49 경남서부지역 메세나 간담회
  - 50 예술단체 워크숍
  - 51 메세나단체 제주 워크숍
  - 52 제35회 경상남도연극제/제8회 경남국제아트페어
  - 53 나눔문화 확산 위해 마주 손잡다/따소미예술단에 '훈훈한' 후원 약속

Greeting Message

지나온 10년,
다시 시작하는 10년

안녕하십니까. 경남메세나협회 회장 손교덕입니다.

경남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기치 아래 경남의 기업과 예술이 상생의 길을 만들며 걸어온 경남메세나협회가 어느덧 10주년. 반년간지로 창간한 경남메세나 회보 역시 23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회보는 경남의 기업과 문화의 상생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해왔으며,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교훈을 얻는 지침서로 남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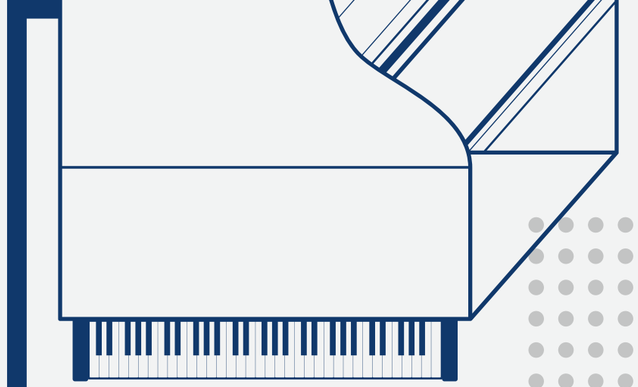
경남메세나협회는 2007년 10월 31일 창립식 및 첫 결연에서 지역의 8개 기업과 10개 문화예술단체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10년. 현재는 217개 회원사, 144팀이 업무협정을 맺어 기업과 문화가 상생하면서, 지역민들에게 기업을 알리고 문화적 소양을 고취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누린 한류의 혜택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과 문화의 시너지효과는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경남메세나협회의 활동상황은 다른 지역 메세나협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기업인 여러분과, 창의적 활동으로 경남의 문화를 이끌어 온 예술인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10년. 이 한마디는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새로운 10년을 향한 청사진입니다. 앞으로 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메세나의 행진에 힘찬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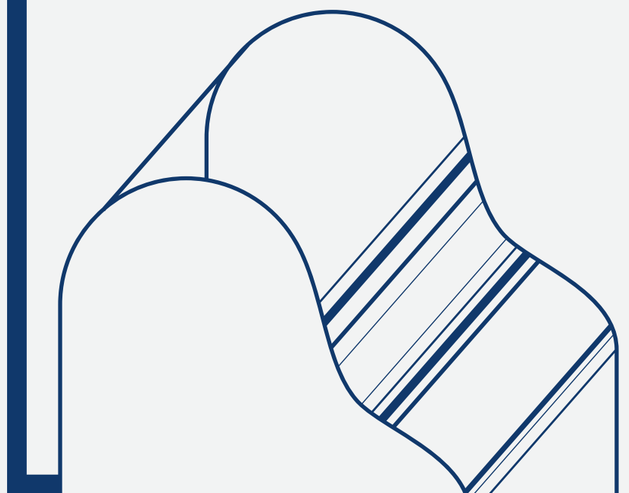
2017년 8월 1일

경남메세나협회장



메세나,
음악을 스케치하다

소리에 취해 소리를 낳은 윤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그림에 취해 그림을 낳은 피카소의 캔버스를 보며
창원국제실내악축제 리허설 무대에 앉아 보자.



소리에 취해 소리를 낳았다

1917년 9월 17일 통영시 도천동 157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늘 소리에 취해 있었다. 자연의 소리에서부터 모든 소리는 음악이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땐 처음으로 작곡을 시도했다. 1937년 첫 동요집 <목동의 노래>를 작곡하여 홍난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해방 전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첼로와 작곡을 공부했다. 일제치하에서 항일조직 결성을 시도하던 중 가택수사에서 한글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 발각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1945년 해방 후 통영여고 교편생활을 통해 통영현악4중주단을 창단, 첼리스트로 활동했다. 그리고 통영예술계 선·후배들과 통영문화협회를 만들어 계몽활동에 열정을 바쳤다. 1950년 가곡집 『달무리』를 출간했고, 초등학생들을 위해 작곡한 많은 동요들도 같은 해에 발간된 검인정 교과서에 실렸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도 동료 작곡가들과 전시작곡가협회를 결성하여 한국의 현대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1964년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동베를린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윤이상 자신의 음악을 개척해 나갔다.

그의 영향력은 독일을 넘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등에까지 이르고 있다. 퇴임 이후에도 작곡과 활발한 강연 및 교육을 통해 세계 음악계에 크게 공헌했다. 1995년 2월엔 독일문화원 본부가 선정한 괴테메달 수상자가 되었다.

윤이상은 1995년 11월 3일 향년 78세에 베를린 발트 병원에서 폐렴으로 별세했고, 베를린 시가 인류에 명예로운 유산을 남긴 인물을 위해 조성한 가토우 지역의 특별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묘비엔 '어떤 곳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과거 100년을 딛고, 미래 100년을 향해

2007년 제정해 격년제로 열었던 윤이상 추모 통영국제음악제는 2013년 이후 중단됐고 탄생 100주년인 올해도 개최가 무산됐다. 남북음악교류사업, 윤이상 페스티벌 역시 명맥이 끊겼다.

윤이상의 창작공간이던 독일 베를린 자택을 2008년 매입해 기념관으로 만드는 사업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자금 부족으로 개·보수는 고사하고 유족에게 치러야 할 매입비용 잔금과 전기·수도요금 등 유지비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이상평화재단은 탄생 100주년인 올해까지 기념사업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재단 재건에 나섰다. 재단 창립멤버로 지역 사회문화 활동을 해온 탁무권 이사장이 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음악회 개최와 자택 기념관 개관 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들부터 하나하나 구체화해가고 있다.

우선 윤이상의 탄생일인 오는 9월 17일을 전후로 '윤이상통일음악회'(가제)와 국제 학술대회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했다. 또 독일 베를린에서 9월에 열릴 세계적 음악축제 '무지크페스트 베를린'(Musikfest Berlin)의 윤이상 특집 프로그램(윤이상 데이)에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초청받는 데에 적극 나섰다.

베를린의 윤이상 자택을 기념관으로 만드는 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재단 임원들이 사비를 털어 최근 자택 매입비용 가운데 미납금을 해결했다. 그리고 독일의 국제문화교류 지원 비영리기관인 '괴테 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에 기념관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탄생 100주년의 화음!
통영에서 발원되어 동서양을 횡단하다

통영시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따르면 올해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연중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에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TFO) 통영 공연 및 유럽투어,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대음악회, 윤이상 관련 자료 전시, 심포지엄, 기념품 및 출판물 제작 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TFO) 유럽투어 공연 추가 도시(독일 함부르크, 보훔)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심포지엄 출연자 섭외 및 출판물 원고 준비, 전시 콘셉트 협의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대음악회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통영시민이 중심이 되는 음악회를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3일 동안 시민대음악회(13일) 외 통영지역 학생음악 동아리 합동공연, 통영지역 성인악단, 극단, 역대 프린지 수상 팀 등이 총 망라된 단일 페스티벌이었다.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TFO) 유럽 투어

확정된 투어 일정은 독일 하노버(9월 28일), 오스트리아 린츠(9월 29일), 체코 브루노(9월 30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10월 2일) 등이다.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이번 투어에서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하인츠 홀리거 지휘 아래 하모니아(1974), 바이올린 협주곡 3번(1992)을 연주한다. 윤이상 선생이 주로 활동하던 유럽 각지에서 선생의 탄생 100주년 축하공연을 개최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평가다.

기획공연

- **5월 14일** | 윤이상 클라리넷 퀸텟1번
- **9월 17일** |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 **9월 22일** |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TFO 연주
- **11월 11일** | 윤이상 무악(KBS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7 통영국제음악제

2017 통영국제음악제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과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개막공연에서는 첼리스트 니콜라스 알트슈태트가 윤이상의 첼로 협주곡을 협연하고,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들로 구성된 빈 필하모닉 앙상블은 4월 1일과 2일, 두 차례 공연으로 윤이상의 '밤이여 나뉘어라', '니노 로타의 9중주', 빈 왈츠의 정수를 선보였다. 또한 피아니스트 장이브 티보데와 소프라노 아네테 다슈가 콜른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말러 '뤼케르트 가곡' 등을 연주했다. 4월 4일 공연에서는 최수열의 지휘 아래 윤이상의 '8중주', 슈트라우스 '메타모르포젠' 등을 들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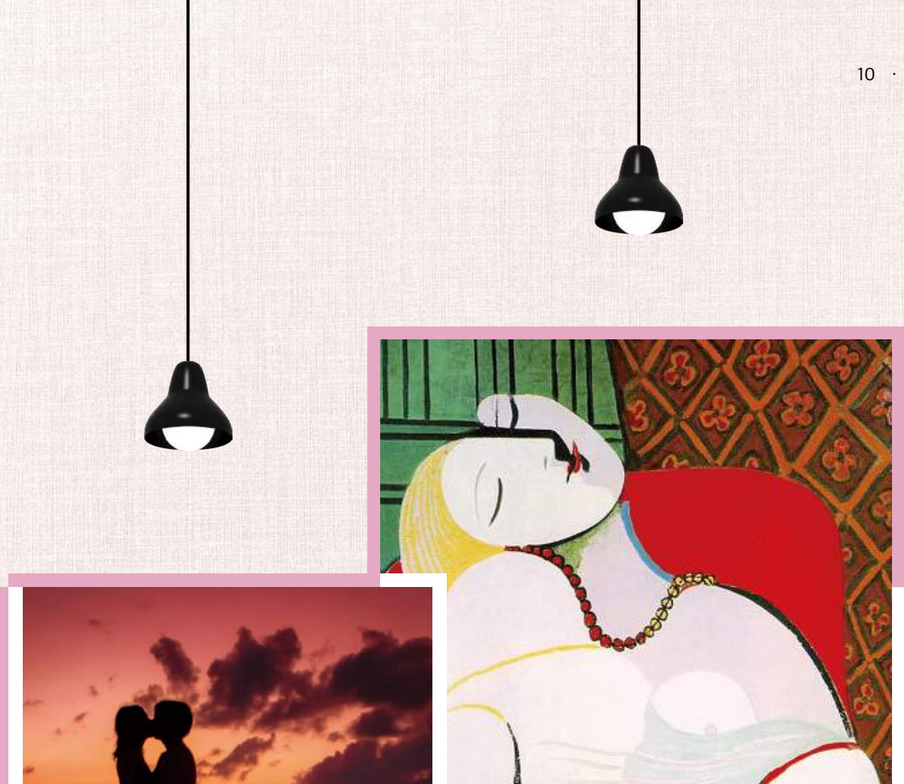
윤이상 작품에 특별한 조예가 있는 독일 연주자들로 구성된 연주단체, '윤이상 솔로이스츠 베를린'은 윤이상의 낙양(洛陽), 협주곡 단편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현대음악이 연주했다. 윤이상의 오페라 '류퉁의 꿈'도 4월 6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졌다.

윤이상의 첼로 협주곡 음반으로 윤이상 음악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보여준 첼리스트 옌스 페터 마인츠는 바흐와 윤이상의 음악을 연주하고, 세계 최정상의 현악4중주단 아르디티 콰르텟이 윤이상의 현악사중주 3번과 4번, 한국 작곡가 박영희의 '크고 높은 바다 위의 수평선', 일본 작곡가 도시오 호소카와, 프랑스 작곡가 필리프 마누리 등의 작품으로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의 상처 속에 탄생한 그림들

그림갤러리(주) 아트디렉터 김효정



꿈(1932) / 파블로 피카소 ▶

이성(異姓)의 상대에게 성적(性的)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사랑의 사전적 정의이다.
사랑은 인간이 가지는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욕구 중 하나로,
상대방의 매력에 끌려 상대방을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다.
인간은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슬픔, 기대와 좌절 같은 감정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 불행한 사람도 있으니...
사랑의 힘이란 실로 대단한 것이다.

20세기 최대의 화가라 일컬어지는 피카소는 독선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많은 여인들과 죽을 때까지 로맨스(?)를 즐기다 92세라는 아쉬울 것 없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 수많은 여인들을 모델로 하여 피카소는 작품의 영감을 얻고 또 걸작들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바뀔 때마다 버림받은 애인과 새 애인 사이의 불같은 질투심을 즐기며(때로는 그들의 육탄전을 화폭에 담으며) 자신만의 이기적이고 은밀한 사랑 놀음을 즐겼다.

피카소의 수많은 연인들 중 4번째 뮤즈로 알려진 마리 테레즈 발터는 피카소가 동경했던 그리스 조각상과 같은 얼굴을 가진, 피카소보다 무려 28세나 어린 프랑스 여인이었다. 피카소가 그린 수많은 여인들의 초상화 중, 그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젊고 상냥하고 온화하게 그린 것은 마리 테레즈이다. 그녀는 화가로서의 피카소의 열망의 종합을 완전히 실현했으며, 피카소가 그린 연인의 초상화중 대중적인 인기도, 작품가격도 가장 높다.

"나는 어제보다도 더, 내일보다는 덜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마리 테레즈!"를 외치던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와 동거한 9년 동안 그녀를 모델로 한 수많은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그 중에서도 1930년대에 그린 <꿈_Woman a sleep in an Arm chair(The Dream)>이라는 작품은 소장자의 실수로 작품이 손상되어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억5500만달러(1626억 2000만원)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작품에서는 피카소의 마리 테레즈에 대한 성적 환상과 집착이 느껴진다. 테레즈의 얼굴은 색이 다른 두 개의 반달 얼굴로 그려져 있고, 이 두 얼굴 사이로 검정색의 긴 선이 지나가며 붉은 입술까지 와 닿는다. 이 선의 분리로 위쪽의 얼굴은 흡사 남성의 성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며 외설적인 피카소의 환상적 사랑을 암시하고 있다. 그녀가 앉아있는 안락의자의 양쪽 팔 받침도 테레즈를 포옹하고 있는 듯한 상징적인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 유명한 대작 '게르니카'의 작업과정을 다큐사진으로 남긴 사진작가 도라 마르와 눈이 맞은 피카소는 테레즈가 딸 마야를 낳은 바로 그 다음해 모녀를 무정하게 버렸다. 그녀는 피카소의 재정적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딸을 데리고 외롭게 살다 피카소 사망 후 '저승에서도 피카소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마리 테레즈를 향한 피카소의 사랑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육체를 향한 '욕정의 사랑'이라면 피카소를 향한 마리 테레즈의 사랑은 피카소에게 화가로서의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리게 하였고, 죽음까지 함께 한 '숭고하다 못해 과분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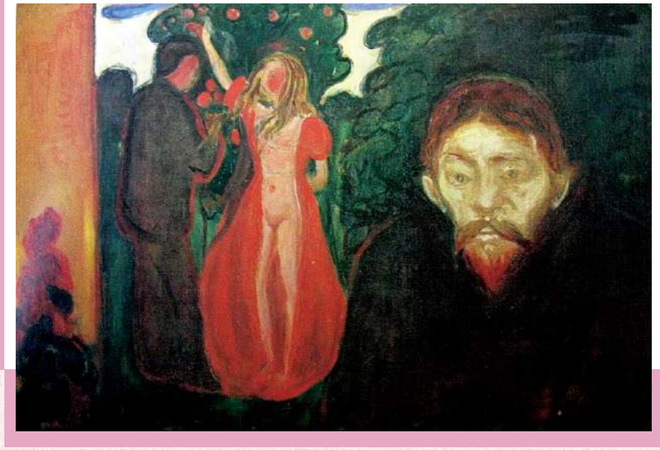
현대인의 실존적 고뇌를 상징하는 작품인 <절규>를 그린 노르웨이 최고의 화가이자 표현주의의 대가인 에드바르드 뭉크는 사랑의 상처와 질투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자신의 화폭에 담은 작가이다.

어린 시절 겪었던 엄마와 누이의 죽음으로 평생을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던 뭉크는 20세 초반 자신의 스폰서의 형수인 밀리 탈로라는 유부녀를 짝사랑하며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했고, 이러한 첫사랑의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랑 역시 친구의 부인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그녀는 다그니 유엘 이라는 뭉크의 어린시절 친구였고 당시 자유주의 문학클럽의 일원이었던 뭉크는 폴란드 출신의 상징주의 시인 스타추 프지비셰프스키와 스웨덴 출신의 작가 스트린드베리에게 그녀를 소개하였다. 뭉크를 포함한 이 세 남자는 모두 그녀에게 반했고 경쟁하듯이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여인은, 뭉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열렬한 거짓말쟁이에, 환각에 시달리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부드럽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타인을 유혹하는데 능한 재기 발랄한 피아니스트이자 시인'인 스타추를 선택하여 그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다. 뭉크는 참을 수 없는 질투심에 평정을 잃고 다그니를 사이에 두고 벌였던, 생생하고도 비참했던 경험을 <질투>라는 작품으로 화폭에 표현했다.

붉은 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성서에 나오는 선악과와 같은 과일을 따려고 한다. 그 때 이 여인의 드레스가 벗겨지며 알몸이 드러나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남자는 욕정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정면을 보고 있는 남자는 남녀(뭉크와 다그니)의 밀회장면을 목격하고 질투심에 불타올라 얼굴이 하얗게 또는 초록색으로 질린 스타추를 묘사한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질투의 색이 초록색이라 말하였다.) 하지만 이 질투의 당사자는 과연 스타추일까? 아니면 뭉크 자신일까?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던 뭉크는 스타추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죄책감과 자괴감에 늘 전전긍긍 했다. 하지만 정작 스타추는 "모든 사람은 인생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으며, 아무도 다른 사람을 나만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결국 다그니 유엘은 또 다른 정부(情婦)인 러시아 군인의 질투에 사로잡혀 쏜 총에 맞아 죽었고, 뭉크의 비극적인 두 번째 사랑은 막을 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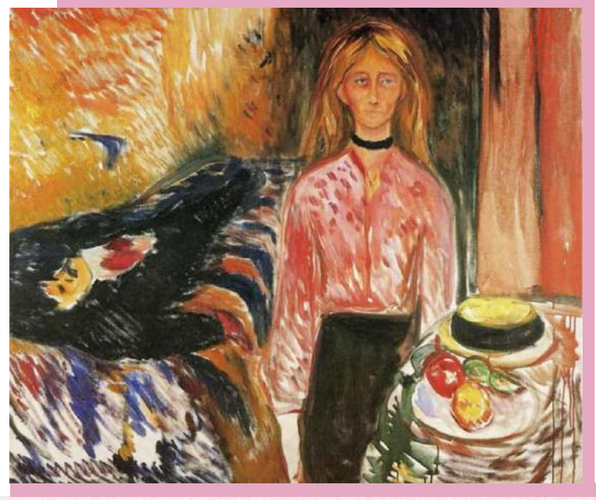
▲ 질투(1907) / 에드바르트 뭉크



▼ 질투(1895) / 에드바르트 뭉크

그 후 뭉크는 툴라 라르센이라는 유복한 포도주 상인의 딸을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툴라의 뭉크를 향한 지나친 사랑과 집착으로 벌어진 자살소동에서 왼쪽 중지를 권총으로 잃는 대형 사고를 겪게 된다. 이 사건으로 그는 여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툴라를 주인공으로 하여 여자가 남자를 살해하는 <살인자>라는 작품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만나는 여자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을 한 뭉크에게 여자는 '파멸과 죽음의 상징'이었고, 여자에 대한 강박관념과 두려움으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 마라의 죽음1(1907) / 에드바르트 뭉크



살인녀(1906) / 에드바르트 뭉크 ▶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사랑을 하면서 파생되는 연인 사이의 적절한 '질투'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을 제공하는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술을 하는 이들에게는 독창적인 영감을 불어 넣어 주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피카소는 수많은 여인들을 유혹했고 사랑받고 사랑했다. 5만점에 가까운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피카소의 수많은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이 남긴 미술 유산으로 삶이 풍부해짐을 느낀다. 또한 뭉크의 반복된 사랑의 실패는 뭉크가 '세기말적 미술양식'에 집중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뭉크의 작품은 현대인이 겪는 삶과 사랑의 불안을 대변해 주며 삶의 고뇌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추앙받는다.

화창한 여름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술관이나 갤러리 산책을 해 보자. '미술품 감상'이라는 특별한 데이트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CHAMF
2017창원국제실내악축제
CHANGWON INTERNATIONAL CHAMBER MUSIC FESTIVAL 2017

한여름 밤 창원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창원시민은 물론 세계인과 함께 할 '10일간의 음악여행'.
신용수 추진위원장이 창원국제실내악축제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어 볼륨을 높이고,
창원대학교 김도기 교수(음악감독)가 지휘봉을 잡는다.

스프링트리오

실내악과 닮은 도시, 창원

창원대로. 동양 최장의 직선도로이며 창원의 간선도로이다. 이 길을 축으로 창원은 기계공업단지와 주거 단지로 양분되어 있다. 그 속에 심겨진 아름드리 맞춤형 공원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365일 돌아가는 역동적인 기계 소리는 창원의 동맥이다. 다양한 자연유산,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울긋불긋 꽃대궐과 꿈엔들 잊히지 않는 해안선 잔잔한 바다, '꼬시래기' 꼬리 물고 올라오는 봉암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야말로 진정한 창원 이미지 아니던가. 창원은 그 자체로 사람과 예술 그리고 기술이 하나로 응집된 도시다. 이처럼 밋밋하지 않은 맛과 수수한 멋은 실내악과 닮았다.

오케스트라 연주의 경우 100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창원시립교향악단의 경우도 단원이 130명이 넘는다. 그만큼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화려하고 장대하다.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급이다. 반면, 실내악은 3~5명의 연주자, 많게는 20명 이하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겉으론 소박해 보인다. 하지만 적은 연주자, 단순한 편성의 악기만으로 무대를 채워야 하는 만큼 섬세하고 치밀하다. 그것이 실내악의 매력이다. '2017창원국제실내악축제'는 기계과학의 도시 창원을 부드러운 실내악으로 다듬어, 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한다는 포부를 내비친다.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

이번 축제는 창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의 일환이다. 단순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유치한다고 '음악도시'로 거듭나는 건 아니다. 좋은 공연을 정기적으로 기획하고, 재능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열정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지난 7월 5일~6일 개최된 '라이징 아티스트 초청연주회'처럼 말이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다.

일반인들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술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요즘이다. 직장인밴드, 아마추어 뮤지컬동호회, 댄스동아리 등. 무대는 전문예술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문화도시다. 이런 점에서 '창원국제실내악축제'는 음악으로 행복한 창원의 미래를 위한 일보 전진이다. 향후 '창원국제실내악축제 콩쿠르'와 '라이징 아티스트신인음악회'를 연계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장르 또한 반드시 클래식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동네방네 시민합창단 창단에 이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대중가요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예향 창원의 명맥 이어지길

실내악에서 모든 악기는 대등한 입장에서 소리를 낸다. 어느 한 악기가 튀거나 묻힌다면 결코 좋은 연주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연주자들은 시선, 표정, 암호 같은 제스처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연주를 이어간다. 이때문에 혹자는 실내악을 '고도의 심리극'이라고 한다. 즉, 실내악은 듣는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도 겸비한 장르다. 이번 축제에서는 실내악의 매력을 알리고, 음악도시 창원의 면모를 소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전공자들에겐 특별한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CHAMF콩쿠르에서 지역의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마스터클래스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음악적 재능이 꽃 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세계 최정상 연주자들과의 (연세대 교수 김영호_피아노, 연세대 교수 양성원_첼로, 동경대 교수 다카시 쉬미츠_바이올린) 만남은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번 콩쿠르에서 발굴된 인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양성하여 '예향 창원'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10년, 20년 후 아티스트로서 창원국제실내악축제를 다시 찾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

추진위원장 신용수

다섯가지 테마로 떠나는 **10일간의 음악여행**

올해 처음 막을 올리는 2017 창원국제실내악축제. 현재 경남프라임필하모니, CWNU윈드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창원대학교 음악과 지휘 전공교수로 재직 중인 음악감독 김도기 교수가 지휘봉을 잡았다.
'마중(Greetings)', '설렘(Padam Padam)', '동행(Count on me)', '조우(Reunion), '다시, 시작(Begin Again)' 총 다섯 테마로 10일 간의 음악여행을 떠나보자.

01 **마중(Greetings)**
창원에서 활동하는 음악고수들이 음악여행자를 맞이한다는 주제다. 창원음악협회, 마산음악협회, 진해음악협회가 시원한 무대를 연다.

02 **설렘(Padam Padam)**
공간과 장르의 특별함을 담고 있다. 실내를 벗어난 장외 무대에서 재즈와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03 **조우(Reunion)**
창원 출신 아티스트가 고향을 찾아 음악여행을 함께한다는 콘셉트로 인연의 귀중함을 담는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서울대 교수인 이경선이 이끄는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트라가 무대에오를 예정이다.

04 **동행(Count on me)**
국내외 아티스트와 관객이 실내악의 향연을 즐긴다. 창작실내악곡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외 8팀이 준비하고 있다.

05 **다시, 시작(Begin Again)**
내일을 준비하는 음악여행자들의 '또 다른 출발'을 담았다. 무 지휘 현악오케스트라로 영국 런던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런던 12ensemble(트웰브앙상블)'의 무대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음악감독 김도기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트라

노부스 콰르텟

트웰브앙상블

실내악 보급에 앞장설 것

실내악이 다소 생소한 것은 사실이다. 대중적 측면은 부족하지만 실내악 나름의 행보가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원에는 연주자, 음악가로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많다. 창원시의 청소년교향악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어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CHAMF콩쿠르 개최와 마스터클래스를 계획했다. 실내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리라 본다.

또한, 실내악 동호회를 구성하여 젊은 음악 지망생들과 정보 공유도 고려하고 있다. 음악회 관객들에겐 흥미 있는 해설을 곁들이고자 한다. 이는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켜 실내악의 대중화에 점진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한여름 밤 느껴보는 실내악 향연

축제의 테마는 '10일간의 여행'이다. 열흘간 창원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르의 실내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관객과 아티스트가 음악여행자가 되어 한여름 밤 실내악의 선율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 보자.

특히, 서울비르투오지챔버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이경선 교수와 노부스 콰르텟의 문웅휘 첼리스트는 마산 출신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연주할 예정이다. '창작 실내악이 흐르는 오후' 역시 우리 지역의 작곡가들이 창작곡을 선보이며, 창원의 음악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문화시민특별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관람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에선 '고향의 봄' 테마로 영국 작곡가 스티븐 몬태규가 '창원의 찬가'를 작곡하여 세계 초연할 예정이다. '고향의 봄'이 어떤 음색으로 연주될지 음악감독으로서도 자못 기대가 크다. 지역에 국한되면 글로벌화 될 수 없다. 우리는 정류장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돋움 계기 되길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듯, 창원에 소재된 음악적 역량을 총집결시켜 성격에 따라 하나씩 묶어 새롭게 발전시키고 싶다. 무엇보다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일회성이나 소모적인 것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창원의 음악적 잠재력을 계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최정상급 팀들의 연주회를 유치하여 음악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

이번 축제를 통해 창원의 음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모티프가 되도록 역량 발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문단체와 아마추어 동호회의 프린지 공연을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무대의 홍보· 마케팅, 지역 역사와 사적 유물, 문화와 관련된 스토리를 발굴해 음악과 접목하는 스토리텔링도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의 잘츠부르크, 비엔나, 카토비체, 바이로이트, 에든버러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근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다. 이후 문예기금은 40여 년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뿌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4년 5273억 원에 이르렀던 기금은 10년 새 90%가 감소, 지난해 81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잔액은 422억 원으로 내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문예기금 고갈 위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 문제는 2004년 문예기금 모금 중단 이후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는 문예진흥기금 고갈 위기 시대를 진단하는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염신규 소장의 글과 지난 10년간 <경남메세나협회>의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경험으로 얻은 소중한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한 경남메세나협회 하선주 사무국장의 글을 통해 기금 고갈 위기를 돌파해 나갈 해법을 모색해 본다.

문예진흥기금 **고갈 위기** 시대의 딜레마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염신규

기금 고갈에 대한 만성화된 위기 의식

'위기'란 표현에서 긴박감을 느끼기에는 뭔가 어색한 면이 있다. 예술계에서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딱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기도 어렵다. 기금 수혜의 대상이었던 몇몇 단체들 이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인 것인데 이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왔던 탓이 크다. 게다가 수년 째 문예진흥기금 위기라는 표현을 거듭 써온 탓에 그 자체가 만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상 수년 째 문예진흥기금이 고갈이 임박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정사실이었다. 기금 수혜자인 예술계도, 기금 관리 운용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관련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자명한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기금 고갈은 적립이 중단되었던 시점부터 예정된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만성화된 시기에 일반적인 방식의 자산운용을 통해 기금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부는 국고 투여를 통해 기금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겠단 입장인 듯 하다. 또한 지역예술계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재정부처가 앞장서서 진행하던 지역발전특별회계(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해온 지역협력형사업의 일환) 전환도 일단은 중단되었다고 한다. 문화예술계의 유일한 공공재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역협력형 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돌리는 방식의, 예술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근거한 발상이 일단 중단된 것도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기금을 둘러싼 진짜 고민이 단지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일까? 문진기금이 유일한 공공예술지원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정부 주도 예술지원 10년의 결과

피상적인 지적이지만 앞서 얘기했듯, 갈수록 예술계가 문진기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기금 수혜에 대한 예술계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술 창작자가 아닌 수혜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 용도가 한정된 복권기금이 편입되면서 문진기금 사업이 과거의 예술창작자 중심에서 수혜자 대상 사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수혜자의 확대를 통해 잠재적 예술시장을 성장시키고 예술소비의 확대를 통해 창작자에게도 예술생태계에 기반한 지원효과를 노리겠다는 게 지난 수년간의 문화부와 예술위의 입장이었다. 창작지원에서 있어서도 개별 창작에 대한 지원보다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투자 대비 지원 대상을 넓게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거듭 발표했었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며 구상했던 예술지원의 프레임은 인프라와 예술생태계에 대한 전반적 지원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가져가고 예술위원회는 문진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동시에, 개별 예술가와 예술단체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그림이었다. 한마디로 예술지원의 전반적 큰 그림과 시스템을 정부가 짜고 관리하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예술위에서 그 큰 그림 위에서 개별적 지원사업과 문진기금의 운용을 책임지며 협업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매우 희한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과거 문화부에서 국고 재정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이 복권기금 등을 통한 문진기금 확대를 빌미로 문진기금 사업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있다. 이 사업을 왜 예술위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나 검증도 없이 문화부가 결정하고 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식이다. 예술위 업무 중 가장 큰 사업은 이제 예술 관람 뿐만 아니라 스포츠관람, 여행 비용까지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되었다. 예술위원회가 아니라 통합문화복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다. 좀 격하게 표현해서 문진기금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라기보다 문화부가 문화예술지원이란 명목하에 이리저리 돌려쓸 수 있는 딴주머니가 되었고 예술위는 전문성있는 예술지원을 끌고가는 민간위원회가 아니라, 문화부의 하청 받는 전문성있는 용역업체가 되었다면 지나치게 까칠한 표현일까?

재원 출처의 다각화 꾀해야

그런데 이런 문제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재원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구조가 존속되는 한 결코 개선될 리가 없다고 본다. 자고로 돈 내놓는 쪽이 갑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잘 바뀌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공 예술지원은 필연적으로 지원의 성격과 함께 검열의 성격을 내재하기 마련이다. 공공 예술지원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조차 '팔걸이 원칙(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같은 명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공공의 예술지원이 자율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 땅에 완벽하게 민주화된 정부, 직접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사회가 건설된다면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런 완벽한 민주사회는 존재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재원의 출처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성하거나 투여해서 문화예술계에 뿌리는 방식의 기금을 벗어나, 정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영역, 예컨대 기업, 시민사회, 노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문화예술의 지원에 대한 필요와 논리를 만들고 공동의 기금으로 모아내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경남메세나에서 **희망을 본다**

경남메세나 사무국장 하선주

경남메세나협회 10년이 보여준 성과

경남메세나협회는 경남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예술단체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창립 첫 해인 2007년 79개 회원사, 10팀 결연, 예술단체 지원금 7억 원으로 시작해 현재 217개 회원사, 144팀 결연, 예술단체 지원금 30억 원에 이르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94년 5월 앞서 설립된 한국메세나협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했음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이다. 지난 10년 간 경남메세나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메세나 활동은 지역 내 많은 기업과 예술단체와의 연결로 이어졌고, 기업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후원으로 인한 보람을 예술단체에게는 후원기업으로 인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케 했다. 이를 인정받아 경남메세나협회는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 유일의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참여기업과 예술단체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지난해 1월 발간한 <경남메세나협회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관련 설문에 참여한 77개 예술단체 대부분(98.7%)이 메세나 지원금이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중 93.8%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메세나에 참여했던 79개 기업들 역시 세제 공제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97.1%)고 응답해 메세나 활동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고전하는 근 몇 년 사이에도 경남메세나협회를 매개로 한 메세나 활동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연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87%)임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성과다. 이러한 경남메세나협회의 성장 이면에는 지속가능한 재원 조성 방식과 투명한 운영이 자리한다.

문예기금 운영처 분산이 과제

최근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논란이 수십 년간 기금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경남메세나협회의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첫 번째로 메세나-기업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예술단체 재정지원금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메세나협회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기업 및 경남메세나협회 지원기금 등을 합하여 전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출처의 기금이 합쳐져 예술단체 지원금으로 활용되지만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문화적 수준이 상승함에 따른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사용하는 문예기금 중 일정부분을 지역 메세나에 지원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메세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매칭펀드 사업이 보여준 예산집행의 유연성

두 번째는 예술단체의 자발적인 재정확보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각종 공모사업은 예술단체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열악한 예술단체의 재정형편 상 매해 중앙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재원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모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은 장기적으로는 예술단체의 예술성과 자발성을 떨어트린다. 경남메세나의 매칭펀드 조성방법은 예술단체들이 스스로 후원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일반인과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예술단체를 통제하는 회계운영시스템 도입이 예술단체의 활동 의욕을 저하시키며 그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1천 원짜리 한 장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경직된 회계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인들을 가두어온 결과 많은 예술단체들이 정부 지원 공모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회계운영시스템 활용 시에도 편법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일이 공공연한 비밀로 부쳐져 왔다. 경남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 사업에서는 결연기업 지원금의 50% 내로 운영비 사용을 허용하여 예술단체의 보조금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복수의 기업이 하나의 예술단체 후원 가능해져

경남메세나협회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 기관, 예술단체를 아우르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열린 자세가 있었다. 사업을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하지 않고 매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노력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실례로 2016년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서는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기업지원금의 최저금액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지원 방식에서도 하나의 기업이 여러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조만간 문예진흥기금의 고갈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이슈로 다가올 것이다. 당장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넋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목줄을 맡기듯 떠맡겨 버릴 일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예기금의 재원을 발굴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에 경남메세나협회가 지나온 10년 간의 노하우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동행 **01**

그곳에 서면 **자신을 보게 된다**

휴롬인재개발원장 김동환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 청정지역의 대명사 산청
> 왕산자락과 필봉산자락을 병풍처럼
> 둘러놓고 앉은
> 휴롬인재개발원이 그림처럼 다가왔다.

사람의 영문자 Human과 이롭다는 우리말의 합성어로, '휴롬'은 힐링 개념을 담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것, 그것이 휴롬인재개발원의 의미이자 목표다. 자연의 맛 그대로 건강주스 만들기 교육과 체험, 조직에 긍정적인 활력과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교육, 자연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익히기,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의 주요프로그램이다.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인공폭포는 풍부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한다. 바닥에 부딪혀 끓어오르는 천연수의 깨끗한 포말은 휴롬인재개발원의 의미가 그대로 묻어났다. 숙박시설을 둘러봤다. 어지간한 펜션과는 품격이 달랐다. 생각 같아선 한 일 년쯤 마음을 비우고 심신을 충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든다. 청정한 초록의 언덕에서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자신과 마주하면서 명상하고 싶은 딱 그런 공간이었다.

숨 가쁜 성장을 넘어 건강한 성장으로

지난 4월과 5월 중국 VVIP로 구성된 60명이 크루즈로 휴롬인재개발원 투어를 예약했지만 사드문제로 취소하는 바람에 낭패를 봤다. 상당액의 매출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답답함을 운으로 수용하는 김 원장의 겸허한 연륜을 보았다. 그리고 산청 숲보다 더 큰 비전을 그리고 있었다. 산청, 담양, 순천,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등 최적화된 지역 인프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꾀하고 있었다.

현재 현대제철 당진공장 기업연수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까지 166회에 걸쳐 7,500여명이 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대강당엔 최신 시설을 갖추고 200명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한국마이스협회와 연계한 기업 연수도 진행 중이며, 호남권과 수도권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휴롬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은 경남은 물론 국내 최고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차별화된 의료관광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미 시작되었다. 동의보감촌, 허준 순례길, 류의태 약수터, 구형왕릉 등을 엮어 스토리텔링사업도 착수했다. 그리

고 동의보감촌과 연결하여 힐링센터 신축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더하여 휴롬인재개발원에서는 산청요(대표 민영기)와 협력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 먹거리와 전통 약초 그리고 전통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신토불이 주스와 생즙, 전통약재 추출물이 우리 고유의 그릇에 담긴다면 충분한 부가가치를 확보할 것이 분명하다. 휴롬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상상 이상의 휴&휴휴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동행 **01**

실험과 실패가 필요하다

산청요 대표 민영기

> 정원 좌우의 반송(盤松) 십 여 그루가 전시품처럼 눈길을 끈다. 반송은 우연처럼 산청요의 특색을 농후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상상했던 것과 달리 민영기 도예가의 얼굴은 소박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약간은 거친 그러나 은은한 깊이가 느껴지는 분청사기처럼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인사를 건네며 웃는 얼굴엔 이가 유난히 하얗다. 찻사발에 담아낸 말차는 선뜻 마실 수가 없었다. 명품(名品)에 담긴 은은한 명차. 사람을 다소곳하게 만든다.

찻사발 45년사를 얼레 풀 듯 천천히 풀어 놓았다. 조곤조곤 풀어내는 정제된 언어는 힘과 속도가 적절하게 조화된 물레질처럼 완성되어가는 도자기를 마주하고 앉은 느낌이다. 그 언어 속에 세월의 힘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찻사발 입문 후 어느 고승이 민영기 작가의 사주를 봐 줬다. 물 건너가면 집이 열 채가 될 것이고, 여기 있으면 죽을 고생을 하며 이름과 집 한 채는 겨우 가질 수 있다고. 부를 쫓지 않은 갖은 고생으로 애국주의의 길을 걸어온 대장(大匠)이다.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우리의 혼과 기가 서린 분청도자기

조선시대 분청의 우수성은 선이든 색이든 청자 못지않다. 민영기 대표는 지금은 분청 시대인데 도자기만 과거에 머무는 세태를 씁쓸해했다. 우리 분청은 어우러짐이 있다. 일본인들이 엄두도 못내는 미적 감각이 있다. 그는 인생을 까먹고 일본인이 못 만드는 걸 만드는 건 또 다른 국력임을 강조했다. 채취한 100종의 흙에서 개성 있는 흙, 쓸 수 있는 흙은 고작 0.3g이었다는 말은 그가 지켜온 국력의 묘목이었다.

우리 사발과 분청에서는 우리의 혼과 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만들 수 있으며 우리의 멋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 가치가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현실을 들추었다.

또한 언론이 전문화 되고 자유화 되면서 뒤따르는 병폐도 짚었다. 해당분야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장관 취임사에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배워서 잘 하겠다. 배워가겠다.'는 건 우리 문화를 퇴보시킬 적임자와 다름없다.

한 나라의 척도는 문화다. 문화가 100이면 경제는 제로, 경제가 100이면 문화는 제로가 아닌 문화와 경제는 수레의 바퀴처럼 나란히 굴러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산청 휴롬인재개발원과의 메세나 결연은 찻사발과 차(茶)처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산을 찾아다니며 흙을 만져 봐도 산청 흙이 으뜸이라 치켜세웠다. 메세나의 물레질로 빚어질 작품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가업 계승이다. 산청요에 우리 도자기 전통의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남 민범식 작가는 벌써 15년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걷고 있다. 2년 전 따로 만든 가마에서 아버지와 소나무 장작의 열기를 온 몸으로 받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02**

예술계를 위해 밝히는 등불

경남자동차판매(주) 대표 이인호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 대암산과 비음산 품에 안긴 고층아파트와 도란도란 앉은 주택들의 원근감 새벽에 한껏 쏟아낸 비가 씻어낸 성산구 일대는 새 옷을 갈아입은 듯 산뜻하다.

메세나 창립 10주년을 맞아 메세나 선봉에 있는 이 대표에게 새로운 10년을 위한 견해를 물었다. 일선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점을 거침없이 말했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팽창이 요구된다. 최근 4~5년간 양적인 팽창이 유지된 점은 장려할 만하다. 그러나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예술계의 후진 양성과 실력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 지원에 최상의 선택과 집중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 보행은 새로운 한국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술계를 위해 밝히는 등불은 기업의 앞날이 밝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벤츠에 음악을 싣고 달린다

단조로우면서 독특하다. 건물 외벽이 까맣다. 지역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모던하면서도 샤프한 디자인. 대암산과 비음산 품에 안긴 고층아파트와 도란도란 앉은 주택들의 원근감. 새벽에 한껏 쏟아낸 비가 씻어낸 말간 성산구 일대는 새 옷을 갈아입은 듯 산뜻하다.

경남자동차판매(주)는 경남챔버소사이어티(단장 차문호)와 통영옻칠미술관(관장 김성수)두 곳과 메세나 결연을 맺었다. 무려 두 곳을 각각 20년과 10년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창원본점 개관식이 있었다. 경남챔버소사이어티에서 전격 지원에 나섰다. 평소 직원 콘서트· 고객 감사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로 화답하고 있지만 새집 집들이에 특별한 우정의 무대를 가진 것이다.

벤츠 본사 직원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딜러· 주변 고객과 기관장들이 운집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에 걸친 연주회는 진지함과 신명이 어우러지면서 감동의 무대를 만들었고 관객의 열광은 흡사 콘서트 장을 방불케 했다.

옻칠, 전통의 귀족적 아름다움이 현대문명의 귀족과 만나다

고객라운지 통영옻칠미술관 김성수 관장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독일 본사 직원들이 물었다. 이게 뭐냐고? 물감이나 화학재료가 아닌 천연재료로 우리나라 1000년 전통 예술품이란 설명에 살짝 만져보고는 경탄했단다. 옻칠 캔버스 위에 나전의 작품 세 점. 우주의 섭리· 균형과 조화· 성장과 팽창의 제목은 경남자동차판매(주)의 경영 이념과 맥이 닿아 있었다. 한국전통예술의 귀족적 아름다움이 현대문명을 집약한 도로 위의 귀족 벤츠와 만나는 순간이었다.

이인호 대표는 작품 전시를 겸한 옻칠 아트잔을 오픈 기념 선물로 마련했다. 일반적인 기념 타월이나 형식적 우산 세트가 아닌 옻칠 아트잔은 기업과 메세나 그리고 예술인의 남다른 의미인 동행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창원본점 벤츠코리아 오픈식은 메세나 매칭이 만든 꼴라보였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구입 시 고객에게 증정하는 감사 선물을 본사에 건의해서 통영옻칠상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동행 **02**

명품을 만나러 가다

통영옻칠미술관 관장 **김성수**

> 기하학적 문양에
> 반짝이는 나전의 조화,
> 빛의 스펙트럼이 펼쳐지며
> 대우주의 숨소리가 들려오다.

통영 미늘삼거리에서 이정표가 반갑게 다가왔다. 옻칠에 대한 경건함을 준비하라는 듯 나지막한 경사길이다. 그리고 언덕을 오르자 발아래 통영 바다가 먼저 반겼다.

영상실에서 옻칠의 역사와 우수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연광택, 방부, 방습, 단열, 방충효과와 우수한 장식성까지. 우리 조상들의 탁월한 과학성은 4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옻칠 경함이 증명하고, 창원 다호리 고분군 유적에서도 입증됐다. 그리고 지금 통영옻칠미술관에서도 현대적이고 섬세한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통영옻칠미술관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옻칠회화작품을 바라보는 동안 나도 모르게 엄숙해지면서 장인의 심장이 뛰고 영혼이 반짝이는 느낌을 받았다.

삶의 궤적, 창작으로 걸어오다

옻칠은 김 관장에게 살이고 피부였다. 인연이 그렇듯 옻칠과 만남은 그에게 시대적인 운명이었다. 마치 조명 없이도 사람 앞에서 스스로 광채를 띠는 나전칠기(螺鈿漆器) 성정과 닮아 있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려 놓으며 얼굴엔 형언할 수 없는 희비가 교차되었다.

전시되어 있는 작품엔 뭐라고 꼬집을 수 없는 어떤 패턴이 느껴졌다. 궁금했다. 중학교 졸업이후 65년 넘게 나전칠기 속에서 살아온 그에겐 자연이 스승이었다고 한다. 끊임없이 관찰했단다. 우리 전통을 생각하고 음양오행을 접목하며 전통과 미래에 대한 균형을 대칭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현상까지도 스스로의 해석을 담아 다채로운 표현기법으로 끌어왔다.

나전칠기는 일본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 이후 옻칠은 귀양살이 신세가 되었다. 캐슈라는 값싼 합성칠 난입으로 서구 문명에 밀려났다. 아파트의 밀폐된 공간도 옻칠을 등한시하기에 충분했다. 대학교 강단에서 밀려났지만 대만을 비롯한 선진 18국과 교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김 관장은 옻칠(Ottchil)에 대해 입맛대로 난무하는 이름을 고유명사화 했다. 옻칠회화엔 액자가 없다. 이 또한 그의 창작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바다를 코앞에 두고도 하루살이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전시장에 빼곡한 옻칠작품에서 뿜어지는 방충효과 덕분이라고 했다.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 옻칠회화가 단연 으뜸이다. 지구촌 유일의 예술재료, 통영이기에 가능하고 경남자동차판매(대표 이인호)의 후원이 있어 지금까지 맥을 이어왔다. 올 하반기에도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옻칠아트전을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내년 비엔날레 계획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도처에서 인문학을 찾느라 야단법석인 우리 현실을 꼬집었다. 옻을 먹을 줄만 알지 옻칠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들. 화학 칠을 옻칠로 착각한 채, 교과서에도 없고 전문 학예사도 없다. 우리의 나전칠기에 대해 이 땅은 칠흑처럼 어둡다며 울분을 토했다. 자개 붙이고 옻칠이 우리의 뿌리이고 전통이다. 세계가 눈독을 들이며 달려드는데 정작 우리는 수수방관이다. 통영옻칠은 경남의 브랜드다. 세계로 향하고 있다. 김성수 관장은 바로 그 희망이다.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아름다운 동행 **02**

실내악 음악의 풀뿌리를 내리다

경남챔버소사이어티 단장 **차문호**

> 실내악처럼 편안한 차 단장의 목소리는
> 연주 속의 내레이션 같았다.
> 1998년 시작된
> 열정의 페이지를 들춰본다.

음대 졸업생은 막상 설 무대가 없다. 특히 지역은 더욱 열악하다. 그러나 경남챔버소사이어티(단장 차문호)는 바로 그들을 위해 차세대음악회를 주최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대관까지 챙겨주며. 올해도 지난 6월 27일 3·15아트홀에서 그들의 출발을 응원하는 앙상블공연이 있었다.

실내악의 특징은 소규모라서 이동성이 좋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십분 발휘해 각지를 찾아가는 공연을 정착시켰다. 전문성으로 응축된 정기연주회와 특별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신나는 문화예술여행, 기업방문음악회 등 창단이후 18년간 지속적인 활동이 증명하고 있다.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클래식의 파트너, 기립박수를 받다

신나는 문화예술여행은 일종의 놀이패다.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영화음악, 째즈, 뽕짝을 망라하여 프로그램도 호락호락(呼樂呼樂)이다. 어르신들은 언제 또 올 거냐고 묻는단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해 진동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영화와 드라마 OST, 동요, 만화영화 주제곡 등으로 흥과 재미를 이끌어냈다. 특히 공연 중간 중간에 각 악기들을 소개했다. 실내악 악기들의 특징과 이해도도 더했다. 올해는 9월에 통영잠포학교 아이들에게 감성의 옷을 입히러 간다.

창단 18년의 배경엔 경남자동차판매(대표 이인호)가 있다. 활동해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조건 없이 손을 잡아 주었다. 때론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빠짐 없었던 파트너십. 그 속에도 잊지 못할 공연은 마산MBC홀에서 가졌던 창단 연주회 준비과정에서 기대와 설렘은 아직도 전율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통영 윤이상 기념관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던 공연이다. 바이올린 2대, 첼로 2대, 비올라 2대로 6개월간 연습했던 쇤베르그의 '정화된 밤'으로, 2014년 5월 13일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이었다. 지금도 경남챔버소사이어티를 이끄는 열정의 원동력이다. 경남자동차판매의 고객을 위한 송년음악회와 신차 발표회 연주로 기업이미지 상승에 미진하나마 보답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한다.

문화예술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료적, 행정적 사고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인 지원이 아닌 차별적인 지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제 지역을 넘어 해외교류에 대한 밑그림도 구상하고 있었다. 언젠가 인지도가 향상되면 외부 협연과 교류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차문호 단장의 얼굴엔 궐기가 분연했다. 경남챔버소사이어티의 화음이 경남을 넘고 한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깊숙이 울려 퍼지는 날을 상상한다. 기립박수 소리가 들려온다.

INTERVIEW 01

감성과 집념으로 업계를 평정하다

(주)에이스코트 정철호 대표이사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유년, 문학이 꿈이었던 소년은 소설가를 희망했다.
인생의 지침서가 없었던 냉혹했던 시절
사업을 택하고 시련을 극복해오면서 비록 꿈꾸던 문학은 버렸지만,
문학적 섬세한 감성으로 빚어내는 그의 노력은
업계에서 에이스로 거듭났다.

문학을 사랑했던 소년, 문화로 사랑을 베풀다

함안군 칠원면 용산농공단지. 7월의 농후한 들판을 가로지르는 차로는 내밀한 역동의 현상을 안내했다. (주)에이스코트. 세 개의 공장 건물과 사무동이 매끈하다. 흠집이라곤 눈에 띄지 않는다. 주차장엔 그 흔한 돌멩이조차 보이지 않았다. 설마 마당까지 주 업종인 용사(溶射)코팅 했나, 싶을 만큼.

창사 21주년을 맞은 (주)에이스코트는 용사코팅(THERMAL SPRAY COATING)전문 업체다. 그동안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완벽한 공정 및 품질관리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10여국 20여 업체에서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 독자적인 첨단 부품 개발로 제지산업·군수산업·선박엔진·핵발전 분야 등, 진정한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그 중심에 있는 정철호 대표이사를 만났다.

유년, 문학적인 소양으로 소설가를 희망했다. 소설은 바늘로 우물파기다. 시련은 필요악이지만 인생의 지침서가 없어 냉혹했던 시절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장편소설을 쓰듯 끊임없이 실험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그의 집념이 업계에서 에이스로 거듭나게 했다.

영국표준협회로부터 ISO9001·ISO14001·OHSAS18001의 통합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작업표준서(기술·생산·품질 등)를 보유하고 다수 또는 대량의 그 어떤 제품도 전수검사와 시험결과물 기록을 5년간 보관. 향후 문제 제기 시 원인분석과 해결의 시료며 도구다. 이런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창업 후 지금까지 고객으로부터 클레임 전무한 상황에 크나큰 자부심을 갖는다.

지난해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주최, 2016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우수 사례 업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메세나 인연에 대해 물었다. 희망이룸오케스트라(석수근 대표). 고용농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다. 경남 유일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운영과 장애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장애인 지원단체이다. 취업을 위해 바리스타 과정을 익히고 제과 기술을 습득하다보면 몸은 지치지만 음악을 통해 가슴에 희망을 담는다. 또 하나의 매칭, 화음정(和音情 김병섭 대표). 1년 8개월 전, 독일 뮌헨 출장에서 돌아오다가 정기연주회 게스트로 참석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재능 기부활동에 마음이 동해 손을 잡았다.

정 대표에게 하모니카 연주를 청했다. 하모니카가 28종인데 그의 케이스엔 12종 하모니카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모래시계 OST-백학을 Gm 전용 하모니카로 연주했다. 하모니의 애잔함이 전율로 휘감았다. 앙코르도 주저하지 않았다. 존 바에즈의 도나 도나를 A-와 C 하모니카를 한손에 쥐고 번갈아가며 연주했다. 가히 수준급이었다.

기업 경영의 다변화와 함께 메세나의 다변화에도 거침없는 에이스코트. 7월 녹음 짙은 농공단지 위에 그의 열정, 하모니가 모래시계 OST와 함께 들려온다.

INTERVIEW 02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즐기는

기업가이자 사회사업가 이년호 회장의 열정

(유)상화도장개발 이년호 대표이사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樂之者- 즐기는 자가 성공한다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의 한 구절이다. (유)상화도장개발의 이년호 회장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에 딱 어울리는 수식어다. 그는 그야말로 樂之者다. 현재 56개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19개 단체를 이끄는 왕성한 에너지와 열정이 대변한다.

화목이 우선인 상화(相和), 곧 상생(相生)이다

40년. (유)상화도장개발 이년호 회장이 건축업과 연계하여 도장 전문업 외길을 걸어온 시간이다. 1983년 마산 양덕동에서 페인트 도·소매업으로 출범해 그동안 도장건설업 면허와 방수공사, 시설물유지공사면허, ISO 9002를 취득하는 등 우수한 시공기술을 보유한 도장 공사전문 기업체이다. 기능성 공장 바닥, 주차장 바닥, 기기제품, 공장 및 건축물 내·외벽 옥상 등의 도장과 방수공사, 시설물 유지를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업체 사용도료(Maintenance-Repair-Operation)도 공급하고 있다. 발주 중앙 쏠림현상으로 지역 업체가 우대받지 못하는 점과, 지역에서 지역 업체 지원 육성에 미진한 점을 적시했다.

창업 1세대로 관련업종의 롤 모델이 되고자 주위의 유혹을 뿌리쳤다. 맨주먹으로 일어선 이년호 회장에겐 친·인척 입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정도(正道)를 걷는다. 기회주의자 근절을 위해 편법은 통용되지 않는다. 직원 사이에서 비방도 금기사항이다. 자신만의 경영철학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건축전문 4개사를 업계 상위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지만 그에겐 운전기사도 없고, 비서도 없다.

특별한 경영철학을 물었다. 지역 업체로서 성장 배경은 상호처럼 서로 화목함이었다. 방수와 도장 분야의 기능공을 자체에서 양성해 전국기능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관리자들은 1인 1자격증(기능국가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책임시공제다. 경영자와 직원상호간 영업실적, 우수제안, 근속년수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원에게는 표창하고 부부해외여행 항공권과 여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부모 생일과 본인 결혼기념일도 챙기며, 최근엔 주식도 배당하고 있다. 사업장 지척의 구내식당과 숙소는 복지제도를 넘어 사원을 가족에 기반을 둔 섬세함이었다. 이 회장은 말했다. 직원 이직률 최소화가 곧 기술력 양성이고 더 나아가 회사의 자산이라고. 그야말로 출근이 기다려지는 직장이다.

작업은 곧 작품이 된다

대표적인 사업 실적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 경륜장 바닥 작업이었다. 경사 45도. 미끄럼방지 작업이었다. 일본 업체가 시공 예정이었지만 국산화된 자사 제품과 기술력으로 시공한 점은 두고두고 상화 역사에 남아있다. 그러나 행을 달리하는 작업도 있었다. 부산의 명물인 광안대교 주탑 작업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만큼 힘들었다. 바닷바람이 드세서 직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작업했다. 또한 11년 전 조선플랜트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작업 철수하며 정리하는 데만 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STX 블록 작업 때에도 철수에 6개월이란 시간과 적자를 감수해야했다.

중국 열풍이 불었을 때 사업 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친구가 만류했다. "그때의 선견지명으로 꿈을 접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등이 서늘해진다."고 전했다.

회사와 임직원 차원의 봉사활동은 이미 알려져 있는 미담이다. 풀잎마을과 동보보육원의 정기적인 건물 도색 작업과 봉사활동에 직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런 정신은 대를 이어 직원들은 자녀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북면 성심원은 물품기증과 투어까지 지원하고 있다. 소망의 집은 시도 국가도 지원이 없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시의 조례 방안을 촉구했다.

울림통이 큰 목소리와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엔 이미 인생 2부작이 전개되고 있었다.

INTERVIEW 03

제28회 대구국악제 종합대상 수상
손양희 대통령상 수상 (판소리 경남 최초)

시내 곳곳에서 펼침 막을 보다

손양희 국악예술단장

Writer. **도희주** Photographer. **편집실**

별주부 여짜오되
"나라에 환후(患候) 계옵시여 약 구하러 가는
길이오니 어머니 너무 근심치 마옵소서."
"오! 내 아들아 기특허다.
충성이 지극허면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럼 수로육로(水路陸路) 이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너라." (중략)

국악인 손양희씨에게 대통령상 수상 영예를 안겨다 준 수궁가. '동편제 판소리 수궁가 2장 별주부 모친 만류' 아니리의 한 대목이다. 예심에선 심청전을 열창했다. 본선엔 3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판소리 입문 32년, 대통령상 도전 4년만의 쾌거다. 판소리계에서 말하는 '앤겼을(몰입)'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다행히 대통령상수상기념 공연을 열기가 식기 전에 남상일 국악인 진행, KBS국악관련악단과 국내 유명 국악인들 구성으로 KBS에서 준비한다고 한다.

타고난 끼, 일군 꿈, 이어갈 꾼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에 위치한 교육원에서 그를 만났다. 유년시절 집안이 넉넉했다. 당시 T·V 국악방송의 창극(현대판 뮤지컬)을 보며 뜻도 모르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며 따라했다. 엄마가 즐겨 들으시던 LP의 영향도 컸다. 만화주제가, 동요, 트롯, 뽕짝까지 뭐든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유독 흥이 많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춤도 곧잘 추었다.

엄마의 조력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일 잘 하던 한국무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멘토였던 엄마 건강이 악화되었다. 게다가 경제난까지 겹쳤다.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국악으로 전향했다. 전화위복! 엄마는 병석에서 27년 동안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비록 아픈 엄마지만 힘들 때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있다는 게 가장 위안이 되었다며 그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번 제 28회 대구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예심에선 심청전을 열창하고 본선에선 수궁가였다. 본선에 오른 3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대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꿈에 나와 제 손을 잡고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경연에선 모든 건 내려놓고 편안 마음으로 했단다. 예지몽은 비켜가지 않았다. 물론 절차탁마 갈고 닦은 실력이 인정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던 해몽은 적중했다. 대통령상으로!

남도민요의 맛은 흥과 구성진 가락을 빼 놓을 수 없다. 타고난 흥이 남도민요를 고집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 경남판소리보존회장, 경남무형문화재 제 9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 후보",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외래교수 등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수궁가 완창은 두 번(1999년, 2006년)했다. 완창은 우리 음악의 꽃이며 종합예술이다. 1인 다역. 천의 얼굴로 연극, 음악, 무용, 문학 요소를 합친 뮤지컬인 셈이다. 완창 소요시간은 3시간.

2009년 12월 1일, 성산아트홀에서 창극 수궁가를 2시간으로 축소하여 2회 공연도 했다.

지역사회의 관심만 뒷받침 된다면 열정의 용광로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다.

항공기 엔진부품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부경 (대표 김찬모)은 국악인 손양희 씨의 포부와 재능, 그리고 열정에 매료되어 메세나 파트너 십이 된 지 오래다.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장 큰 사업이다. 이 대회장이 김찬모 대표이다. 매번 후원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뭉칫돈을 털어야 되는 실정이다. 작년에 이어 20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 1박 2일. 그러나 각 지역에서 이동시간까지 2박3일 일정이다. 지역 경제에도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

2006년부터 8년 간은 후진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창원어린이국악단을 창설해 그야말로 버는 만큼 투자 했다. 지금은 재충전을 위해 학부과정을 밟고 있다. 내년 창원어린이국악단 재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연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한인, 유학생, 현지인이 자리한 무대에서 1시간 공연이 끝났을 때, 유학생들이 찾아와 울먹였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왜 이런 음악을 접하지 못했을까요? 학과목에 동양음악을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인들이 고유 음악을 논할 때, 우리는 시범이나마 들려줄 노래가 아리랑밖엔 없었어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국악을 가져가고 싶고, 알고 싶어요." 하소연하는 그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었다.

판소리는 몸으로 하는 연주다. 몸에서 만물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득음의 경지도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한다. 경남에 예고가 없고, 대학교에 국악과가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역으로 환경이 열악한 건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다는 증거다. 시립이든 도립이든 국악과 개설에 온 힘을 쏟고 싶다고 했다. 열정의 용광로는 이미 타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만 뒷받침 된다면 나머지는 준비완료다.

예술교육은 **영재 아닌 모두를 위한 것**

>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은
> 미래 직업 선택에 밑거름

Artis

아티즈(Artis)는 2004년 설립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자 예술교육전문기관이다.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기법을 개발하여
영국 전역에 보급하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이사장 유영학)은 2014년부터 교사를 위해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연수를 지원해왔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자유학기제 확대 등으로 교육 현장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육수단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지난 2월 춘천 상상마당에서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국에서 선발된 50명의 초중등교사, 예술강사, 교육복지사가 참여한 이 자리에 영국 사회적기업 아티즈(Artis) 대표 레베카 보일 서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예술요소를 활용한 창의교육법을 소개하기 위해 강연자로 나섰다.

이에 레베카 보일 서 대표의 강연을 정리해 싣는다.

창조를 위한, 예술에 의한 융합교육

예술교육은 단지 소수의 영재들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다. 단지 미래의 음악가, 배우, 댄서, 시각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함은 아니다. 예술을 사용해 자신감을 기르고 팀워크 능력을 개발하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리더십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

보일 서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 방법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개방적인 모습을 지닌 한국 교사와 한국 예술 교육자들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도 남겼다.

아티즈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참여한 교사들에게 학습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교육활동에서 자신들의 어휘와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자신의 수업현장에 다시 가져갈 수 있음을 단언했다. 그리고 국가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예술 수업을 다른 과목들처럼 중요한 수업으로 대우할 필요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국의 모든 아이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면, 민간기관들은 이미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수업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고안해 혁신적으로 실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와 학습에 더 많은 창의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교사 연수와 멘토링 프로그램이 매우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놓치지 않았다.

예술과 문화는 사회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의 훌륭한 방법이다. 예술과 문화가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보일 서 대표는 예술을 통한 어릴 적 경험을 말했다. 발레 열성팬이던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예술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트럼펫을 배웠고 춤을 익히며 예술 공연에 빠졌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골드스미스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기도 했다.

예술의 역할과 역량은 무한대로

그렇다면 예술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예술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때 교사들은 아이들의 타고난 창의력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개방적인 태도와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정신, 그리고 동시에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정 그 자체가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이해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감성이 메말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예술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티즈가 꿈꾸는 문화예술교육의 미래가 궁금했다.

예술과 과학은 통합됐을 때 종종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래의 많은 직업은 과학과 기술로 대체될 것이다. 그것은 창의적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예측 때문이다.

창의성 교육으로 개발된 역량은 오늘날 아이들에게 미래의 직업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더 창의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 예술은 아이들이 유연하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티즈와 같이 예술교육 기획 관련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결연단체
활동후기

전국에서 최장 역사
마산 국제 연극제

극단마산 대표 이상용

거목, 극단마산의 나이테

지난 5월 13일, 창동예술소극장에 싱가포르 극단 I-Lien Drama Society의 단원들이 무대에 섰다. 창단 50주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극단이다. 새로운 건설문화를 창조해나가는 광득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최광주)와 메세나 매칭으로 극단마산(대표 이사용)이 초청한 공연이었다.

영원한 사랑, 싱가포르 판 사랑과 영혼이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후유증으로 여자가 죽게 된다. 그녀는 저승에서 천사에게 이끌려 천국에 간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자 천사는 그녀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승으로 다시 데려와 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남자는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좌절 속에서 하모니카를 불며 소통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2회 공연. 울고 싶다고 눈물이 나는 건 아니다. 2회에 걸쳐 남우의 구구절절한 그리움에 몰입된 눈물 연기는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극이 진행될수록 여기저기 손수건을 하나씩 꺼내드는 관객이 늘어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2015년 5월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마산·일본 연극 교류 24주년 기념으로 일본극단 수가오(창단 70주년)를 초청했다. 한 카페를 운영하는 주방장이 20년 전에 상처하고, 연이어 딸 부부도 사고로 잃는다. 남아있는 손녀, 손자를 양육하며 겪는 에피소드 <구화九華의 미화美花>를 초청 공연했다.

극단마산은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영문과 출신인 이상용 대표는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변방 마산에서 1989년 사비로 마산국제연극제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국제연극제는 올해 29회를 맞이한다.

2014년엔 마산국제연극제(MITF) 25년사를 발간하고, 2015년 11월엔 창동야화 1, 2, 3편을 통해 예향 마산의 향수를 그려 그 속에 극단의 역사도 부활시켜 놓았다.

정기공연은 지난해 4월 제128회 <눈 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를 무대에 올렸다. 올해 정기공연은 가을을 기약하고 있다.

리는 중이다. 이 역시 재원이 필요하지만 관에서 예산지원은 꿈도 못 꾸고, 선뜻 출연해줄 독지가도 흔치 않은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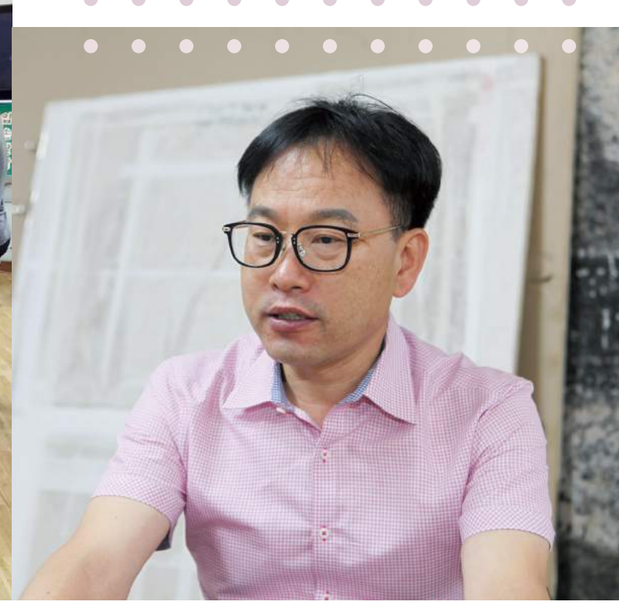
창단 이후 지금까지 세계 80국의 극단 초청공연은 극단마산의 자산이다. 그간 뒤를 알뜰하게 받쳐준 듬직한 경남메세나가 있었음에 몇 번이나 고마움을 표했다.

내년 마산국제연극제 창립 30주년 기념 공연은 메세나와 더불어 위상에 걸맞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연극 불모지 마산에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고 전국을 놀라게 하더니,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집념은 가히 박수를 보낼만했다. 연극으로 울고 연극으로 웃었던 연극인 50년사에 후회는 없다는 그의 얼굴에서 대통령상을 2회나 수상한 저력을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극단마산의 비전이 비치고 있었다.

연극으로 울고 웃었던 연극인 50년사

창원엔 6개의 극단이 있지만, 극단마산은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사비로 리모델링한 마산연극관은 마산 연극 85년의 역사 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있다. 극단마산의 이력서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기도 하고, 바닥 공간까지 활용하여 촘촘하게 이마를 맞대고 있지만 이건 일부에 불과하다. 아직 돌돌 말려 자료실에서 빛도 못 보는 옛 포스터는 세월의 먼지를 쓴 채 언젠가 빛 볼 날을 막연하게 기다

창아가는 미술교실



결연단체
활동후기

지역에서 안주하는 **시대를 벗어나다**

경남전업미술가협회 지회장 임덕현

지역미술, 세계시장을 찍고 자신감으로 돌아오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장르의 작가만 1차적인 입회 자격이 주어지는 경남전업미술가협회(회장 김덕현). 작품성과 인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깐깐한 입회 조건은 메세나 결연 업체 주식회사 구구(대표 이재철)와 닮았다. (주)구구는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에 자리 잡은 방위산업용 회로카드 및 소프트웨어 등을 전문 제작하는 업체다.

미술은 물론, 지역의 예술은 늘 좁은 시장과 홍보 부재에 시달린다. 이 모두가 예산이 드는 문제들이다. 예술인들은 돈에 관한한 무지(?)하다. 그러나 메세나 사업에 힘입어 바깥시장을 개척하고, 지역에서 안주하는 시대를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개최한 한·중 현대미술교류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창립(1998년)이후 처음이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베이징 야서 갤러리에서 2016년 7월 15일부터 6일간 전시되었다. 작품도 소품에서 벗어나 100호~200호에 이르는 대작이다. 베이징 작가 박광섭(PIAO GUANGXIE)의 <바다를 유영하는 남자>와 김권룡(JIN QUANLONG)의 <관계>라는 제목의 자물통 그림은 상상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베이징 전시에 이어 2016년 11월 16일부터 6일간 성산아트홀에서 대작 전시회와 한·중 교류전을 겸했다. 회원 100명 중 60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1,000여명의 전업 작가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경남전업미술가협회의 전시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후 대작의 돌풍을 일으켰다.

교류전은 상호간 문화의 충격을 낳았다. 북경은 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켜 놓았고 화실의 규모도 장대했다. 베이징 작가들은 경남전업미술가협회의 도록과 작품에 적잖이 놀라워했다. 올해 제 2회 한·중 교류전은 12월 초에 개최한다. 이제 자신감도 붙었다.

메세나 지원에 재능기부로 응답한 경남전업미술가협회

경남전업미술가협회는 지난해 벽화사업과 찾아가는 미술교실 사업도 전개했다. 벽화사업은 창원실내운동장 계단을 타일 모자이크로 꾸며 심미성을 더했다. 그리고 남해, 의령, 하동, 합천에서 특성에 맞는 벽화를 그려 마을 이미지를 밝혀 놓았다.

찾아가는 미술교실은 문화 소외지역의 어린이에게 미술지도와 미술심리치료를 맡는다. 일정의 재능기부다. 작년엔 8월 7일부터 3박 4일간 함양 마천초등학교를 찾았으며, 올해는 7월 24일부터 3박 4일에 걸쳐 사천 곤양초등학교에서 동심을 그렸다.

올해 신규 사업은 경남 8경전이다. 하반기에 각 시.군 지역의 8경을 담아 순회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전업미술가협회는 올해 경남메세나협회 <어울림과 소통展> 단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주)구구와 함께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동반성장을 기대한다.

결연단체
활동후기

지역에서 **오페라 무대를 만나다**

경상오페라단 단장 최강지

오페라, 서부경남을 깨우다

황무지 개간은 모험이고 도전이다.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에 블루오션을 기대할 수도 있다. 문화의 중앙 집중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에서 클래식 음악을, 그것도 대형 오페라 무대를 지역에서 꿈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같이 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대형공연장마저 전무한 서부경남 진주에 다름 아닌 중무장한 경상오페라단(단장 최강지)이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주위에서 우려가 컸다. 그러나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6월 2일과 3일 경남문화예술회관(관장 유병홍)과 사단법인 경상오페라단이 공동 기획하고, 세계적인 발전기업 한국남동발전(사장 장재원)의 트라이앵글 협업의 반응은 과히 폭발적이었다.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는 약자에 대한 시선과 상류사회의 위선 등 사회의 부조리를 특유의 사실주의적 접근으로 통렬하게 꼬집으며 극적 재미를 더했다. 강 단장의 축적된 전문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이었지만 전석 매진으로 화답했다.

경상오페라단이 기획한 이번 공연에서 주목할 점은 오페라 선진국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민 참여 오페라였다는 점이다. 가사를 우리말로 옮겼다. 단원이 선창하고 관객은 합창으로 이끌어 관람의 묘미를 더했다.

대중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의 시도는 지난해 공연한 코믹 오페라 '세실리아의 이발사'에서도 통했다. 후원업체를 자막으로 노출하고 막 전환 장면은 영상으로 공개했다. 관객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끓어올랐다.

걱정 마, 경상오페라단이 있잖아!

진주 경남과기대 제2캠퍼스 길목, 내동로 213에 단아하게 자리한 VK아트홀이 있다. (사)경상오페라단이 정식 음악 공연장으로 등록한 공간이다. 지난해 2월에 문을 열었다. 폭스캄머(Volks Kammer)는 독일어로 모두를 위한 작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최 단장은 독일에서 유학하며 우리 현실을 직시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한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게 설립 의도였다. 이미 사명감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도 감안하고, 공연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그러나 경쟁력을 위해 현실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여타 단체 협력으로 시상제도까지 갖추어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이 점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해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서부 경남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야심작도 이미 기획에 들어갔다. 창작 뮤지컬에 벌써 우리 고유 흥의 발현이 기대된다. 생전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인터뷰를 빌려본다. 유럽에서 오페라 사양을 걱정하자 "걱정 마, 꼬레아가 있잖아!" 이렇듯, 이미 전 세계 오페라시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 하물며 우리 스스로 지역에서 일구지 못 할 게 없다는 단장의 말은 숙연하게 들리기까지 한다.

하반기엔 경남메세나협회와 주식회사청남(대표 김봉실)이 공동 주관하는 을숙도 오페라 페스티벌에 경상오페라단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고무적인 일이다. 최강지 단장은 가슴이 뜨거웠다. 척박한 서부경남에 심은 오페라 나무가 한국남동발전과 더불어 블루오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걱정 마, 경상오페라단이 있잖아!

경남메세나협회, 청탁금지법 이후 기업과 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문화경영세미나 개최

경남메세나협회가 창원문화재단과 공동 주관한 문화경영세미나가 1월 18일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은 이후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기업과 예술계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도내 기업인과 예술인이 한자리에 앉았다.

창원문화재단 신용수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김영란법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했다. 또 요즘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위축된 문화예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도 역설했다. 이어 선진도시는 문화예술이 국가 브랜드를 이끌어 간다며 창원시는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했고 이것은 도시의 가장 큰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안태혁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교수,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은율), 김성규 회계사(한미회계법인) 등이 △청탁방지법의

의미와 시행배경 △청탁금지법 관련 문화예술계 쟁점 △청탁금지법과 기업 예술협력 방안 연구 등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강연이었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엔 참석자들과 쟁점 사안에 대해 기업· 예술단체의 대응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태혁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메세나의 의미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예술활동의 창의성,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인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투자, 지출의 대상이 아닌 창조성을 기르고자 하는 인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울림과 소통전

기업과 예술, 기업의 이미지를 그리다

경남메세나 회원기업과
경남전업미술가협회 작가들이 어울렸다.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BNK경남은행 갤러리에서 열린
'2017 어울림과 소통展'은
지역의 기업인과 작가들이
작품으로 만나
창의적인 소통의 한마당이 되었다.

2017 어울림과 소통展 오프닝이 BNK경남은행 갤러리에서 새해 기운과 함께 펼쳐졌다. 경남전업미술가협회 작가들이 기업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전시 후 해당 기업에 영구 기증하게 된다. 본 행사는 예술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문화예술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작품들은 회원기업의 이미지를 미술작품으로(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제작하여 전시되었다. 기업의 고유 이미지가 작가의 창의성이라는 의상을 입고, 능동적 발전을 염원하는 특별한 의미로 연출된 것이다.

이번 <어울림과 소통展>은 경남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BNK경남은행 갤러리 첫 대관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담당자들은 자평했다.

김재호 작가는 BNK경남은행의 CI 컬러인 붉은 색감을 활용해 서양화로 기업 이미지를 담아냈다. 천원식 작가는 철의 강인한 이미지를 조각에 담아 피케이밸브(주)를 표현하고, 임덕현 작가는 수묵담채화 기법을 통해 (주)인산의 기업 이미지를 한국화로 나타냈다. 남양매직(주)을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서양화로 표현한 박배덕 작가는, "어울림과 소통展은 예술과 기업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생 발전을 꾀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 지역 문예인의 작품 전시와 지역민의 다양한 작품 관람 기회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ecenat News

2017 경남메세나 정기총회

2월 23일 호텔인터내셔널에서
'2017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의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를 비롯한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과 임원선임이 결정되었다.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협회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144개로 늘어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협회 창립 10주년과 의미의 궤도를 같이 했다. 찾아가는 공연, 문화공감, 문화경영 도서배부의 회원사 지원 사업은 도민의 문화 인식 제고와 더불어 문화 복지 향상에 노둣돌을 놓았다.

문화나눔 사업과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고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소외계층에 정서함양 및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사업으로 메세나의 빠른 정착과 확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감사보고와 결산승인에 이어 올해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가 다뤄졌다. 결연 상승세에 힘입어 150팀 이상 결연계획을 목표로, 올해는 김해시가 매칭펀드에 동참해 메세나의 활동이 질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원선임에서는 경남은행 손교덕 행장이 제8대 경남메세나협회장으로 연임하는 데 합의 추대 되었다. 손교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예술의 르네상스를 꿈꾸었던 처음의 마음 그대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청사진과 비전을 위해 아름다운 꿈을 함께 펼쳐나가자"고 했다. 이어 신규 부회장엔 경남은행 구삼조 부행장과 경남농협 이구환 본부장이 선임됐다. (주)화인테크놀리지 서영옥 대표이사가 승격선임 선정되었고,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이동규 국장이 이사로 교체선임 됐다.

경남도의회 전 도의원 임경숙 부회장 등 8명의 임원이 재선임 되어 앞으로 메세나 선도 역할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로써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1명, 감사 2명, 이사 14명, 고문 4명으로 총 32명으로 결성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식전 공연으로 이한진 밴드 한설희 보컬은 영화 '시스터 액트'의 주제가 Oh, Happy Day를 열창에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트렘펫과 트롬본 협주는 그 외 2곡에도 흥을 더했다. 그리고 만찬연주에서는 경남솔로이스츠 현악 4중주가 결 고운 현의 울림으로 메세나 창립 10주년을 한껏 고무시켰다.

경남서부지역 메세나 간담회

지역발전의 파트너로 만나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주관한 '경남 서부권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월 24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 김윤세 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남 서부지역 기업인과 예술단체, 시·군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발전본부-하동연예예술인협회, 휴롬인재개발원-분청사기연구소, (주)청남-(사)경상오페라단 3개 팀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이로써 지역발전의 파트너로 win-win할 수 있는 교류기반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세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를 매개로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 발전하고 지역민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예술과 기업의 창조적 실천

이 절실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뜻 깊은 간담회였다.

(사)경상오페라단 최강지 대표는 "서부경남의 유일한 오페라단으로서 지역 예술단체들과 협연으로 지역민을 위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메세나 매칭으로 서부경남의 문화발전이 지속되길 바라며, 천년 고도 애향의 도시 진주가 예술로 거듭나는 데 보다 창조적인 마인드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도는 서부경남 기관 단체들과 실정에 맞는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적인 메세나 참여가 관람객 저변 확대로 이어져 서부권 문화예술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회 예술단체 워크숍

경남메세나협회는 5월 11일 창원 성산아트뷔페에서 2017년도 중소기업 매칭펀드 결연사업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들과 '2017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기업과 예술단체가 전략적 파트너로 모범적 교류활동을 펼쳐온 기업과 예술단체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모범답안 모색에 유용한 팁이 되었다.

부곡스파디움 안주현 대표는 '부곡온천문화예술협회'와 결연하여 지역사회공헌을 실천하고, 문화예술 환경 불모지의 소외계층에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부곡스파디움 따오기호텔 갤러리 디엠에서 <Flow-잃어버린 파랑을 찾아서-노병열 展> <소벌야회-김미련 展> <유년의 기억풀이-유진수 展>을 펼쳤고 전시작은 지정기탁 지원했다. 또 찾아가는 공연으로 '새봄맞이 부곡온천 보따리 콘서트'도 가졌다. 이러한 단체 간 매칭지원에 힘입어 호텔의 품격상승, 직원들의 정서적 감성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온천관광 특구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이미지 쇄신으로 전시홍보를 통한 방문객 증가의 파급효과가 드러났다. 안 대표는 이어 기업과 단체가 매칭 지원 전시를 통해 향후 창녕호텔 아트레지던스·스파아트프로젝트 및 소식지 발간으로 사업방향을 모색했다. 전시회 소식은 지역 언론에서도 높이 평가하며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김해시 김해대로 소재 극단이루마 이정유 대표는 '극단이루마 & PS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교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결연되고 있었다. 예술성과 상업성의 배분에 관한 직원연수와 연극작품 제작 및 배우 지원으로 '선녀씨 이야기' · '오래된 이야기' · '하늘로 가지 못한 선녀씨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20th 임창정 전국투어 콘서트 'My Story' 외 세 차례의 기획공연 전문스텝 및 인력지원 사업 사례도 소개했다. 또, PS엔터테인먼트가 극단이루마를 지원한 사례는 현재 경남매칭펀드 연계 지원 사업으로 2005년 시발했다. 현재 13회 차를 맞이하는 김해아동극페스티발을 2018년 9월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제1회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발로 전환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PS엔터테인먼트는 2016경상남도 해외문화예술교류로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공연도 후원하여 한류 아시아 지역 확산을 통한 경남연극문화의 저력을 알리며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복지지원 대상학교를 무료로 초정하여 특별기획한 2014 가족극 <또랑>, 2015년 가족극 <가시고기>, 2016년 가족극 <정남이는 열일곱살>을 관내 공연장과 협약하여 총 12개 초·중학교 자유학기제 일환으로 단체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보조금 지원 제도는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연아 주무관의 발표가 있었고, 매칭펀드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는 경남메세나협회 하선주 사무국장이 진행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메세나 단체 상반기 제주 워크숍

메세나 확산 추세 … 전국네트워크 구축 공감

지난해 말 전국 메세나단체 간담회에서 의결된 지역 메세나 단체 순회 개최에 따른 상반기 워크숍이 4월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대구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의 실무 관계자와 각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 메세나 확산 추세에 따라 '메세나 전국네트워크(가칭)'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일정 협의 및 추진 절차와 조직구조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가 절실했다. 각 단체별 운영현황과 사업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운영계획안을 수립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240개 회원사 결연으로 정부협력사업과 내부사업으로 대별한 사업 현황을 밝혔으며, 올해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경남메세나협회는 217개 회원 매칭으로 주요사업 현황을 제시했다.

지역 네트워크 구성의 합법적인 근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시행을 계기로 전국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지역단체의 개별적인 예술후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메세나 활동조직 구성, '문화기본법' 상의 '문화권' 확대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 기여 도모, 국가 예술정책의 민간 파트너 조직으로서 역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구축 방안으로 신규 메세나 단체 출범을 유도하고, 정부 협력 요청과 네트워크 출범, 역할 분담론의 개진도 잇따랐다. 조직 운영 방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사례를 참조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조직구성은 하반기 예정된 워크숍에 각 단체 회장이 참석하여 주요 사항을 확정짓기로 했다

Mecenat News

2017 제35회 경상남도연극제 개막

도내 14개 극단 참가 '극단고도' 대상 수상

2017 제35회 경남연극제가 지난 3월 28일 개막했다. 4월 9일까지 13일 간 순수 관객 3,5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성황리에 마쳤다. 도내 12개 지부 14개 극단이 참가한 이번 경남연극제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그리고 밀양청소년수련관에서 경연을 벌였다.

이번 연극제에서 진해 극단 고도의 <오케이 컷!> (유철 작·연출)이 대상을 받으며, 6월 2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경남 대표극단으로 참가했다. 극단 고도는 이번 연극제에서 단체 작품상인 대상을 비롯해 연기대상, 연출상까지 3관왕을 거머쥐면서 경남연극의 새로운 기대주로 부상했다.

<오케이 컷!>은 영화배우가 꿈이었던 실향민 한민국과 지인 한대한이 DMZ내 어느 마을에서 영화를 만들어보자는 무모하고도 황당한, 그러면서도 웃픈 스토리를 현실과 영화적 상상을 오가며 몽타주 기법과 과거를 회상하는 플래시백 기법으로 풀어냈다. 심사기준인 △창작초연 △개성 있는 공연 △발전가능성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돋보일 작품에 가장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 연기대상은 작품상 대상 <오케이 컷!>에서 열연을 펼친 이선무와 통영 벅수골 <꽃잎>에서 능숙한 연기를 선보인 손미나가 수상했다.

희곡상은 창작초연작 4개 중에서 극의 구성이 가장 두드러진 진주 현장 <길 위에서>를 쓴 임미경에게 돌아갔다. 연출상은 대상작 <오케이 컷!>의 유철이, 무대예술상은 함양 상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현장 박범주와 이금철이 공동 수상했다.

제8회 경남국제아트페어 - 지역미술문화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 창출

모두가 즐기는 미술 축제의 장(場)

제 8회 경남국제아트페어가 지난 7월 6일부터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 3층 제 1, 2 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의 유일한 아트페어로 지역미술시장 활성화와 문화공유 기회제공을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기존 지원전시회 분야인 기계·산업전시회, 소비재전시회에서 문화예술분야로 확대한 프로젝트였다.

지역 미술시장의 수요기반 확립과 수요창출로 경남권 미술시장의 자생력 제고 및 미술유통 구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단순 미술장터가 아닌 지역미술문화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창출에 주안점을 둔 "모두가 즐기는 미술 축제의 장"이 되었다.

총 11국 82갤러리 174부스 규모엔 이름에 걸맞게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갤러리 및 작가가 참가해 다채로워진 특별전이 더욱 돋보였다. '스파클링, SPARKLING!'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세라믹창작센터에 입주한 국내 유망 청년작가들의 작품이었다. '공감-예술과 여행이 필요한 시간'의 秋田(아키타)-경남(慶南), 한일문화교류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태국 등 총 22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하여, 일본과 경남의 관광지와 문화를 예술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조의 기획전이었다. 또한 프랑스 풍경화가 다게르(Jacque-Mandet Daguerre)의 '사진의 진화, 파리에서 태어나 아메리카에서 꽃핀'에서 유럽대륙을 건너 미국에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꽃을 피우고 다시 아시아와 한국에서 급성장의 컨셉을 담아냈다.

경남의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엔 부스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영미 작가의 '반야심경'과 최진식 작가의 '미소사유'는 경남국제아트페어의 관객들을 깊이 있는 사색의 장으로 안내했다는 평가다.

경남메세나협회 + 경남사회복지협의회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 확산 위해 마주 손잡다

7월 13일 경남사회복지센터 대강당(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에서는 사회공헌에 관한 정보공유를 위해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행사가 열렸다. '경상남도사회공헌정보센터 출범식, 협약식 및 세미나'가 바로 그것. 경상남도사회공헌정보센터는 경상남도 내 (공)기업·민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으로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부 출범식에 이어 경남메세나협회, 경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외숙),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 세 개 기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해 홍보, 후원 연계를 통한 기부, 사회공익,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해 사회공헌을 약속했다.

2부에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진행됐다. 고대권 한국SR전략연구소 본부장의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사회공헌 사례와 협력네트워크 방안, 정책적·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지정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기업, 종교계 등 사회공헌 관계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식을 축하했다.

경남메세나협회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

따소미예술단에 '훈훈한' 후원 약속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지사장 이기섭)가 7월 3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3층에서 문화협력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는 경남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업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따소미예술단(대표 정승화)과의 결연으로 이어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가 후원하고 따소미예술단이 임직원 대상, 기념식 공연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소미문화예술단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음악 봉사활동을 위해 2004년 6월에 결성한 단체로, 매년 지역민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연주봉사예술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경남메세나 **회원사**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은행
경남오페라단
광득종합건설㈜
농협경남본부
㈜무학
㈜센트랄
우수AMS㈜
㈜인산가
임경숙
㈜한국야나세
㈜화인테크놀리지
청호산업개발㈜
㈜ONE
경원벤텍㈜
김도기
리베라컨벤션
범한산업㈜
산골농장
신화철강㈜
원광종합건설㈜
구인모
한국민예총경남지회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한림건설㈜
㈜현대단조
화성G&I㈜
the큰병원
가야BS㈜
(주)강민종합건설
강산기술검사
거제레미콘㈜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컨벤션웨딩부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
경남신문
경남자동차판매㈜

경원여객자동차㈜
㈜경한코리아
㈜고구려
㈜고려철강
고운치과병원
광신기계공업㈜
㈜구구
㈜국제전기
그린산업㈜
그림갤러리㈜
(합자)금강전기공업사
금강중기
금성이노텍㈜
㈜금솔개발
(주)기산산업
김선경 외과의원
김순태 치과의원
(유)김해공영
낙우산업㈜
남명산업개발㈜
남양매직㈜
㈜네오씨티알
대경건설㈜
㈜대길티에프
㈜대동종합건설
대방스페샬스틸㈜
대선주조㈜
대신금속㈜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
㈜대호엠엠아이
(주)대호테크
㈜덕광중공업
(주)동구기업
동명다이아몬드
동양특수금속㈜
㈜동오프랜지
㈜동은화학
동인하이텍㈜
동환산업㈜
두남화학
디씨엠㈜
디케이락㈜
라온산업개발㈜
마산정안과

㈜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
무림페이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
미즈맘여성병원
법무법인 미래로
㈜베스트엔드베스트
㈜보강기업
㈜보덕건설
㈜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
㈜부일이엔씨
(주)부평디엔피
㈜북성산업
㈜사릭
㈜산호수출포장
㈜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
삼원동관㈜
삼원테크㈜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병원
성부가스산업㈜
㈜성우
㈜성환금속
㈜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승진기계㈜
시영건설㈜
신광에이스전기㈜
대양산업가스㈜
신요푸드시스템
신창기계

㈜신한물산
㈜쎄노텍
아진기계
㈜애드테크
㈜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주)에이스코트
영광산업㈜
㈜영남엘피씨
영민테크
㈜영신화공
㈜영일정공
㈜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예인산부인과
㈜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옥산IMT
원 한의원
원광산업석재
㈜웰템
유니온엔지니어링
유림건설㈜
㈜유림철강
유전공업㈜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사보이호텔
(주)이우
인산죽염촌㈜
인화정공㈜
일림나노텍㈜
㈜장생도라지
㈜장성E.P.S
㈜장한
정남종합건설㈜
㈜정문애드테크
주용테크
중앙건설㈜
㈜중앙금속
중원종합건설㈜
(주)지에스비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자동차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
최익수의원
캠코 경남본부
츄고쿠삼화페인트㈜
(주)케이씨
(주)코앞건설
(코)코텍
쿠쿠홈시스㈜
태광실업㈜
㈜태완정공
㈜태현메가텍
㈜포스텍
풀만호텔
피케이밸브㈜
하이에어코리아㈜
한국남부발전 하동본부
한국소니전자㈜
㈜국토보상원
한국정기공업㈜
한국제강㈜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
해수종합건설㈜
현대공영㈜
㈜현대기업
㈜혜동
㈜호텔인터내셔널
홍기종합건설㈜
㈜화영
화영철강㈜
화이트치과
화일종합건설㈜
㈜화영
㈜화인에이티씨
㈜팬코리아중공업
(주)환웅정공
흥일기업㈜
P5엔터테인먼트
STX조선해양㈜
STX엔진㈜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_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공간, 티켓구매, 직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직원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술단체워크숍_ 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획 및 단체운영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_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_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_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 문화소외 이웃을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_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관람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 사업 Development

홍보지 '경남메세나' 발간_ 연 2회 발간하여 메세나협회 사업소개 및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포럼_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 경남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_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_ 연간 메세나 활동을 정리하고, 예술후원과 교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_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확대를 위해 2015년 3월 첫 시행한 예술후원 촉진 사업으로서, 경남메세나협회가 전국 3대 매개단체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 메세나음악회_ 지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예술의 대중화와 예술친화기업 조성에 기여합니다
어울림과 소통전_ 기업과 미술인이 매칭을 하여 기업의 이미지 또는 철학을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열고, 전시 후 작품을 기업에 기증합니다.
토론회 _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메세나를 연구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회원사 가입 안내

경남메세나 회원사가 되어 문화예술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십시오,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서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손비인정, 개인은 연간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해드립니다.
회원사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gnmecenat.or.kr - 메세나가족 - 회원사가 되시면

창업 1905년

마산 蒙 명산

몽고간장®

100년을 넘어 지켜온 우리의 맛

1905년 창립 이후 1세기가 넘는 시간!
우리 고유의 맛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몽고식품만의 깊은 맛을 만들며 지내온 시간들.
오직 최고의 제품만을 생각하며 한 길만 걸어온 몽고식품은
100년간 쌓아온 발효기술과 임직원 한명 한명의 장인 정신으로
이제 또 다른 100년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30여개 나라에서 사랑받는
몽고식품의 모든 임직원들은 초심과 기본을 되새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만들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蒙 몽고식품주식회사

온 세상 모두를 위한
친환경에너지부터 **신재생에너지·미래에너지사업**까지-

오늘은 **한국지역난방공사**지만
내일은 **세계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代를 잇는 생명경영 철학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 仁山家

인산가는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 걸출한 의학자였던 인산 김일훈(仁山 金一勳 1909-1992)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선생의 차남인 김윤세 교수(전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가 1987년 설립한 기업입니다.
인산 선생이 발명한 죽염을 비롯하여 선생이 여러 저술을 통해 제시한 이 땅의 탁월한 물질들을 상품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산가는 한국 토종의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적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우리 몸 안의 공해독을 제거하는 차세대 신약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7일은
(주)仁山家 김윤세 회장이
죽염발명가 아버지 인산 선생의
뜻을 받들어 세계 최초로
죽염 제조를 산업화한 날입니다.
인산가는 생명 존중 정신을
기업 철학으로 삼아 30년을 이어온
생명경영 기업입니다.

www.insanga.co.kr

인산家 INSANGA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17-A-560 심의일자 : 2017.5.25 유효기간 : 2017.12.31

투유 | 뱅크

스마트뱅킹의 새이름 **투유뱅크**
상품가입이 손쉬운 **투유금융센터**
새로운 BNK경남은행을 경험하세요

BNK 경남은행

기업,
예술에 물들다!

요금별납
창원우체국

기업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3층
Tel. 055-285-5611 Fax. 055-286-5610 www.gnmecenat.or.kr